

주요 내용

99년 수정 경제 전망

수정 배경

- 예상보다 급속한 소비 회복세
- 소비 증가가 투자 회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조짐
- 엔고에 따른 수출 여건 회복 조짐
- 대우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 미약

주요 지표 조정의 내용

-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: 5.4% → 7.1%
- 민간소비(6.5% → 7.2%) 설비투자(13.5% → 18.8%) 수출(0.5% → 3.2%)
-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(229억 불 → 214억 불)
- 연간 실업률 6%대로 하락(7.1% → 6.8%)

99년 수정 경제 전망

【수정 배경】

- 예상보다 급속한 소비 회복세
 - 실업률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임금소득도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에 힘입어 소비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
 - 종합주가지수가 단기간에 1,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주가 상승 속도가 급속하여, 부의 효과(wealth effect)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
- 소비 증가가 투자 회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조짐
 - 건설투자는 아직 부진하지만,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
 - 특히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기업들의 미래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
- 엔고에 따른 수출 여건 회복 조짐
 - 현재의 엔고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이 크게 늘어 대외부문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가 높아질 것임
 - 하지만 최근의 엔고 현상이 미국 경제의 둔화 및 일본 경제의 회복 조짐이라는 경제 기초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엔고의 장기화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
- 대우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 미약
 - 대우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교란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. 또 대우 사태로 기업구조조정의 절박성이 인식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가속화될 경우 일시적인 실물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동요가 진정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도 상당 정도 진전된 현시점에서 그 파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따라서 대우 계열사의 공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할 전망이다

【주요 지표 조정의 내용】

-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: 5.4% → 7.1%
- 주요 실물지표의 상향 조정
 - 민간소비(연간 증가율): 6.5% → 7.2%
 - 설비투자(연간 증가율): 13.5% → 18.8%
 - 수출(연간 증가율): 0.5% → 3.2%
-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
 - 수출 증가세에 비해 수입 증가세(연간 증가율, 19.3%→ 24.9%)가 더 급속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전망(229억 불 → 214억 불)
- 연간 실업률 6%대로 하락: 7.1% → 6.8%

< 99년 수정 경제 전망 >

구 분		1998	1999(전망)		
			상반기 (실적)	하반기	연간
국민 계정	국내총생산(%)	-5.8	7.3	6.8	7.1
	총소비(%)	-8.2	5.9	6.5	6.2
	민간소비(%)	-9.6	7.0	7.4	7.2
	총고정자본형성(%)	-21.1	-2.7	2.5	0.0
	건설투자(%)	-10.2	-13.3	-3.5	-8.0
	설비투자(%)	-38.5	19.7	17.9	18.8
대외 거래	경상수지(억 달러)	400	136	78	214
	무역수지(통관기준)	390	120	80	200
	수출(억 달러)	1323	663	702	1365
	(증가율, %)	(-2.8)	(-1.2)	(7.6)	(3.2)
	수입(억 달러)	933	543	622	1165
	(증가율, %)	(-35.5)	(15.1)	(35.0)	(24.9)
가격 지표	소비자물가(평균, %)	7.5	0.6	0.9	0.8
	회사채수익률(기말, %)	8.0	7.96	9.5	9.5
	원/달러 환율(기말, 원)	1204.0	1157.6	1150	1150
실업률(평균, %)		6.8	7.5	6.0	6.8
국제유가(WTI, 기말, \$/bbl)		11.66	20.53	22	22
엔/달러 환율(기말)		114.83	121.23	125	125

주 : 상반기 실적중 국민 계정 부문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임